〈일반논문〉

합천지역 3 · 1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 희 주 **

〈목차〉

Ⅰ. 머리말
Ⅱ. 합천지역 3 · 1운동의 서술과 연구현황
Ⅲ. 합천지역 3 · 1운동 연구의 과제
Ⅳ. 맺음말

[국문초록]

합천지역 3 · 1운동의 연구사를 검토하고 향후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3 · 1운동은 지방 전파과정에서 폭력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합천은 삼남지역에서도 투쟁이 가장 격렬했던 곳이다. 동족부락으로 구성된 향촌질서를 기반으로 유림이 시위를 주도했다. 면 단위의 연합시위 등 지역적 연대도 특징으로 지적된다.

이곳의 3 · 1운동은 일제하 한국인의 저술에서 발견되지만 전반적인 운동상은 1960년대에 기술, 정리되었다. 이후 발간된 각종 관찬자료집을 통해 언급한 특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체상을 규명하거나 해석하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합천의 3 · 1운동사 연구가 새로운 성과를 제출하고 한

---

* 이 글은 2018년 11월 16일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합천문화원 주최로 개최된 "3 · 1운동 100주년 기념 합천군 3 · 1독립만세운동 학술대회"의 필자 발표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 한국국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계 비약한 시점은 운동 70주년을 맞은 1989년이었다. 공동연구를 통해 시위의 특징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어 증언 자료를 보완하여 양상과 성격을 세밀하게 분석한 논고도 발표되었다. 당해의 결과로 이 지역 3 · 1운동의 전모와 실상이 상당 부분 규명되었다. 이후 희생자의 추가 발굴 등 지역차원의 접근은 있었지만 연구 자체는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합천의 3 · 1운동사가 현 단계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도 층인 유림과 시위 특징을 대표하는 폭력성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 대한제국기에서 일제하에 이르는 합천의 국권회복운동과 대중, 부문운동을 정리하여 그 과정에서 만세운동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합천, 합천의 3 · 1운동, 합천유림, 3 · 1운동의 폭력성

I. 머리말

3 · 1운동이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는 다 아는 사실이다. 거족적이고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던 이 운동에 대한 기록과 서술은 일제치하에 시작되었다. 그 결과 100주년을 맞은 현재 3 · 1운동에 대한 연구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운동의 중요한 흐름이었던 지방으로의 전파과정이나 투쟁양상은 비교적 늦게 검토되었다. 물론 지방사적 성격을 강조한 논고는 일찍이 발표되었지만[1)]

1) 조동걸, 「3 · 1운동의 지방사적 성격」, 『역사학보』 47, 역사학회, 1970.

구체적인 지역사례를 다룬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다.[2)]

이중 경남 합천은 공세적이고 격렬한 시위양상으로 주목받은 지역이었다. 여기에 '민족대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림의 역할이 뚜렷했던 지방으로 알려지며 관심은 증폭되었다. 축적된 자료에 새로운 증언과 해석이 더해져 1980년대 말에 오면 이 곳의 3 · 1운동 연구는 일정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 하지만 이후 더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이 지역 3 · 1운동사의 지평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연구사를 검토해 본 것이다. 연구 전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를 점검하고 보완의 여지를 찾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일제하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합천의 3 · 1운동이 어떤 흐름으로 기술되었는지 살펴보았다. 3 · 1운동사의 연구 과정과 궤를 같이하여 합천의 경우를 추적한 것이다. 두 번째 1989년에 발표된 합천지역 3 · 1운동사의 종합적 성과를 소개하고 의미를 찾아보았다. 당시의 업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도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합천지역 3 · 1운동사를 보강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가 3 · 1운동뿐 아니라 이 지역 근대민족운동사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2000년대 까지 각 시, 도, 군 별로 3 · 1운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물이 발표되었으나 일일이 소개하지 않는다. 지방시위의 사례와 성격에 관해서는 이정은, 『3 · 1 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국학자료원, 2009가 참고 된다.

Ⅱ. 합천지역 3 · 1운동의 서술과 연구현황

3 · 1운동에 대한 서술과 연구는 일제하에 시작되었다. 이어 해방공간과 정부 수립을 거치며 자료 발굴과 논저의 축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3] 합천지역 3 · 1운동에 대한 기술과 연구 동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제시기에서 1980년대까지

일제치하의 저술에서 이 지역 3 · 1운동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박은식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이하 『혈사』)이다. 1920년 상해에서 발간된 이 책에서 박은식은 운동의 '전국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별 시위양상과 피해실태를 통계로 제시했다. 이를 경남지역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4]

표 1. 『韓國獨立運動之血史』의 경남지역 3 · 1운동 일람표

지명	집회 횟수	집회 인수	사망인	부상자	투옥자	소실 교회	소실 학교	소실 민가
고성	3	15.00	30	20	10			
창원	4	2.500	320	120	120			
의령	5	2.020	20	30	20			

3) 신용하, 「3 · 1운동 연구의 현 단계와 과제」, 『한민족독립운동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93; 김창수, 「3 · 1 독립운동 연구사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교문사, 1998.

4) 박은식, 「韓國獨立運動之血史」, 『朴殷植全書』 上, 檀國大東洋學研究所, 1975, 546~549쪽. 여기에는 합천과 초계가 분리되어 있으나 같은 지역이다.

지명	집회 횟수	집회 인수	사망인	부상자	투옥자	소실 교회	소실 학교	소실 민가
마산	4	1.300	29	120	200			
거창	7	1.800	20	120	200			
산청	4	2.000	30	10	50			
진주	17	28.000	42	150	242			
사천	4	3.000	120	380				
남해	3	1.200	19					
창녕	4	1.350						
울산	7	5.000	38	128				
동래	4	1.200	9	70	9			
부산	5	2.000	24		3.824			
김해	6	8.800		52				
기장	3	1.500						
하동	17	12.000	17	95	50			
함양	3	1.200	3	12	20			
합천	5	4.800	160	518	290			
초계	4	1.200	12	21				
함안	6	2.000	227	90				
통영	3	1.200	21	36				
안의	3		6	15				
양산	4	1.250						
밀양	3	1.350	105	15	65			

위에 나타난 대로 합천은 경남 24개 지역 중 집회횟수와 참여인원, 희생자 수 모두 3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인구를 감안하면 운동의 양상이 도내에서도 가장 격렬했음이 확인된다.

한편 뒤에 공개되었으나 『혈사』에 앞서 작성된 일제의 군경자료에는 군내의 시위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집계되어 있다.[5)]

표 2. 3월 18일~4월 4일까지의 합천군 시위상황

날짜	지역	참여 인원	참여층	검거인수
3.18	삼가면 금리		普	13
3.21	초계면 초계	3,300	普, 耶	
3.22	묘산면 도옥리	80	普	
3.23	묘산면 도옥리	90	普	18
3.23	삼가면 금리	10,000	學, 普	22
3.31	가야면 치인리	150	學, 普	4
4. 3	야로면 덕암리	100	普	7
4. 4	가야면 산상	300	普	

* 참여 층에서 學은 학생, 耶는 기독교, 普는 일반 주민

자료에 등장하는 합천군의 시위횟수는 총 8건으로 『혈사』의 지표와 큰 차이가 없다. 인원수와 검거자로 보면 3. 21~23일 사이에 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초계와 삼가면은 기독교인과 학생들이 가담한 것으로 나와 있어 주목된다.

당시 중앙에서 간행된 유일한 신문이자 3 · 1운동의 상황을 일제의 입장에서 신속히 보도했던 매일신보[6]에도 합천의 기사가 발견된다. 매일신보는 3월 22일 합천의 만세운동을 처음 게재했다. 여기에는 시위가 장날을 기하여 3월 19일 오후 8시 발생했으며 참여 군중이 300명인 것으로 나온다.[7] 이어 3월 21일 합천군 초계에서 폭발한 무력운동의 양상을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8]

5) 조선헌병대사령부 · 조선총독부경무부, 「朝鮮騷擾事件一覽表」, 『한국민족운동사료』, 3 · 1운동 편 1, 1977, 387~394쪽.

6) 김희주, 「매일신보에 비친 경남서부지역의 3 · 1운동과 일제의 대응」, 『강우문화연구』 1, 2006.

7) 『매일신보』, 1919년 3월 22일, 「합천. 장날을 이용하야」.

8) 『매일신보』, 1919년 3월 25일, 「합천. 순사 일명이 부상」.

'합천군 초곡(草谷)에서는 이십일일 다수 군중이 모여서 경관 주재소와 우편국을 습격하고 유리창을 깨뜨림으로 발포하여 해산케 하였는데 순사 일명이 부상하였고 군중 측에서도 약간의 사상이 났다 하더라'

이 기사는 여론을 의식해 피해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생각되나 어쨌든 합천의 시위가 폭력적이고 격렬한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 매일신보는 삼가면민들이 진압 병력 파견을 우려하여 진주–합천간 도로의 교량을 방화, 파괴한 사실도 속보로 전했다.[9)]

한편『혈사』에 이어 1921년 역시 상해에서 김병조의『韓國獨立運動史略』이 간행되었다. 김병조는 33인의 기독교 측 대표로 3월 1일 독립선언식 직전에 중국으로 망명한 인물이다.[10)] 이 책은 1919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1일까지 1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다룬 것이다. 김병조는 여기서 3 · 1운동의 지역별 사례를 소략하게 서술했으나 합천은 등장하지 않는다. 1919년 3월과 4월에 참여한 시위 인원수도 도와 지역별로 나오는데 3월 경상도 통계에는 합천이 빠져있다.[11)] 단 4월에는 합천에서 총 3.000명이 궐기했다는 기록이 나온다.[12)] 이외 국외에서 외국인들에 의해 영문으로 3 · 1운동 서적이 출간되었고 당시 소련과 일본에서 발표된 문헌들이 있으나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다.

국내에서 3 · 1운동 관련 저서가 본격적으로 간행된 것은 광복 이후이다. 1945년 8월부터 1948년 7월까지의 해방공간은 3 · 1운동 연구의 2단계에 해당된다.[13)] 이 시기의 저서들은 전문적인 연구서는 아니었고 참여

9)『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橋梁을 燒却. 교통이 두절되었다」.
10) 김형석 편,『일재 김병조의 민족운동』, 남강문화재단출판부, 1993.
11) 김병조,「한국독립운동사략」,『독립운동사자료집』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105~106쪽.
12) 김병조,「한국독립운동사략」, 173쪽.
13) 신용하,「3 · 1운동 연구의 현 단계와 과제」, 110쪽.

인사들의 증언을 채록한 실록과 회고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당사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사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중 합천의 사례를 언급한 경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3 · 1운동 연구의 3단계는 1948년 8월부터 1969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1953년 정전 이후 잡지와 문헌을 통해 운동에 관한 견해와 해석들이 게재되었다. 이 시기에는 전쟁의 영향으로 남한에서는 우파 이데올로기에 의한 3 · 1운동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1950년대 후반에 오면 사료에 근거한 전문성을 갖춘 논저들이 나타난다. 그중 이병헌이 발간한 『3 · 1運動秘史』에 합천에 관한 서술이 처음 등장한다. 천도교인으로 서울의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이병헌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1946년 이 책을 처음 간행했다. 이후 검경의 신문조서와 판결문을 참고하여 증보판을 출간했다. 여기에 합천의 운동 양상이 기록되어 있다.[14]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월 19일–수천 명이 합천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에 참여하였으나 헌병대에 해산당하고 5, 6명이 검거.
>
> 3월 21일–초계에서 수천 명이 주재소와 우체국을 습격, 파괴하고 시위행진. 경찰이 발포하자 군중이 흥분하여 대항하다 사상자가 발생.
>
> 3월 25일–오전 5시 해인사 승려 수백 명이 태극기를 흔들고 행진하자 촌락에서 호응하여 군중이 가세.
>
> 3월 25일–상백면 사무소 앞에서 수백 명이 만세운동을 전개. 출동한 헌병대가 발포하였으나 격분한 군중은 해산하지 않고 대항하니 이에 호응하여 각 촌에서 3천명이 몰려와 면사무소를 파괴, 방화. 헌병이 당황하여 응원대를 청하니 군 병력 150명과 소방대가 출동하여 무력으로 진압. 부상자가 수십

14) 이병헌, 『3 · 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946~947쪽.

명이고 100여 명이 체포되었다.

4월 1일—해인사 승려와 부녀자 수천 명이 조선독립을 기원하는 불공을 드린 후 태극기를 들고 山下로 행진. 헌병의 총격으로 20여 명이 부상당하고 30여 명은 체포되어 진주재판소로 압송.

보이는 대로 이 책은 4월 1일까지의 상황만을 소개하고 있어 전체적인 운동상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히 통계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시위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했고, 특히 해인사의 3 · 1운동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또 면단위에서 가세한 연합시위, 전개과정에 나타나는 치열함과 완강성 등 지금까지 합천 3 · 1운동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시위의 양상과 성격을 최초로 서술했으며 이후 이 지역 3 · 1운동 연구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이병헌의 기록은 연구사적 가치를 지닌다.

4. 19혁명과 5. 16을 거쳐 196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기간에도 3 · 1운동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도권 학자들의 관심은 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제관계 등 전체상에 머물렀을 뿐 지방사로 성격을 규명하려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방 3 · 1운동은 오히려 직접 가담자나 후손들이 사료 수집과 현지답사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제출했다. 경남은 변지섭이 편찬한 『慶南獨立運動小史』(이하 『소사』)가 대표적이다. '三鎭의거'를 주도했던 변상태의 아들인 변지섭은 부친이 광복 직후부터 수집한 자료와 증언을 정리하여 1966년 이 책을 발간했다. 여기에는 경남 44개 지역의 운동양상이 비교적 세밀하게 소개되어있다.[15] 합천은 8개 읍면(합천읍, 대양, 야로, 묘산, 대병, 상백, 가회, 초계면)의 시위과정과 함께 운동의 전파경위, 추진주체, 희생자의 실명이 모

15) 변지섭, 『경남독립운동소사』 상, 삼협인쇄사, 1966, 3~100쪽.

두 제시되어있다.[16] 『소사』는 시위양상뿐 아니라 발발경로와 참여인사의 면모를 처음 드러낸 저술로 이후 합천지역 3 · 1운동사 서술의 전범이 되었다.

이 책이 나오고 3년 뒤 지방사를 다룬 자료로 이용락의 『3 · 1運動實錄』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경남지역의 사례는 대부분 『소사』의 기록을 보완하는 선에서 작성되었다. 특히 합천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전재하였다. 다만 이용락은 답사를 통해 『소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상을 확인했고 가담자였던 최범술의 기록을 근거로 해인사의 3 · 1운동을 간략히 추가했다.[17]

3 · 1운동에 대한 연구는 50주년을 맞은 1969년, 『3 · 1운동50주년기념논집』이 발간됨으로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18] 관계연구자 총76편의 논문이 수록된 이 논집은 당시까지 학계의 연구수준을 대표하는 업적이었다. 또 3 · 1운동을 절대화하고 정신을 단순히 민족주의의 이념으로 파악했던 시각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19] 다만 여기에서도 지방운동의 흐름이나 성격을 구체적으로 다룬 글은 발견되지 않으며 합천지역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단 유림의 관계를 밝힌 허선도의 논문에 합천이 부분적으로 언급되어있다. 허선도는 당시 편

16) 변지섭, 『경남독립운동소사』상, 35~47쪽.

17) 이 책은 1985년 3 · 1동지회에 의해 『3 · 1독립운동실록』이라는 이름으로 수정 없이 재출간 되었다. 본고는 1985년 판을 인용한다(3 · 1동지회, 『3 · 1독립운동실록』하, 1985, 79~94쪽). 이용락은 경남 울주 출신이다. 1919년 4월 8일 온양면 남창리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검거되어 1년 형을 선고받았다. 1943년부터 전국을 답사하며 3 · 1운동 생존자들의 증언을 수집했다 한다. 이를 바탕으로 『3 · 1운동실록』을 편찬했다(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3, 삼일독립운동 편, 1987, 711~712쪽).

18) 동아일보사, 『3 · 1운동50주년기념논집』, 1969.

19) 역사문제연구소 민족해방운동사 연구반, 『쟁점과 과제-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1990, 138쪽.

찬된 관찬자료를 근거로 삼남지역, 특히 경상도의 3 · 1운동을 주도한 계층은 유림이었음을 증명했다. 그는 경남의 경우 합천, 산청, 진주지역에 시위가 격렬했음을 지적했다. 또 이 일대 유림 중 파리장서에 서명한 인사가 다수였음을 주목하고 합천출신 인물(宋鎬完, 宋哲秀, 宋鎬坤, 金東壽, 宋鎬基, 宋在洛, 文鏞)을 거명했다.[20] 이 글은 3 · 1운동에서 유교계, 특히 영남 유림의 역할을 규명한 것으로 후일 합천지역 운동의 주도 층을 분석하는 작업에 기초가 되었다.

한편 당해부터 1970년대 중, 후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각 종 관변위원회에 의해 다양한 3 · 1운동 자료집과 연구서가 발간되었다. 자료집은 일제 관헌과 군부의 문서 및 심문조서, 판결문 등 1차 사료를 편집한 것이다. 이들 기록이 활용됨으로 연구 수준이 진일보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물론 역사이념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당시 정부가 주도한 관찬사업이었지만 이로 인해 연구영역이 확장되고 지방사연구의 기원이 열린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⑴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1 2 3 4, 1969.
⑵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2, 3 · 1운동사(상), 1971.
⑶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3, 3 · 1운동사(하), 1972.
⑷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자료집』 4, 3 · 1운동사 자료집, 1972.
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자료집』 5, 3 · 1운동 재판기록. 1973.
⑹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자료집』 6, 3 · 1운동사 자료집. 1973.

20) 허선도, 「3 · 1운동과 儒敎界」, 『3 · 1운동50주년기념논집』, 1969. 286~296쪽.

(7)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3 · 1운동 1, 1977.

(8)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3 · 1운동 2, 1978.

(9)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3 · 1운동 3, 1979.

(1)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자료집으로 경남의 3 · 1운동은 2권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復命書가 주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경남의 운동이 삼남 6개 도 중 제일 격렬했음을 지적하고 31개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를 소개했다. 합천은 3월 20일 읍내와 22일 초계, 23일 삼가시위가 포함되어 있다. 또 도내 군, 면에서도 합천 지역이 가장 치열했다고 밝힌 뒤 운동개황을 첫 번째로 서술했다.[21] 여기에는 읍내와 삼가, 초계의 시위상황만이 나와 있는데 언급한대로 이곳의 거사가 가장 공세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합천 3 · 1운동의 양상을 상징하는 격렬함과 폭력성을 최초로 언급한 문헌이라 하겠다.

(2), (3)은 독립운동사편찬위에서 발간한 것이다. 3 · 1운동의 전국적인 전개과정과 해외의 사례가 지역별로 세밀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은 운동의 진행을 도, 군과 읍, 면, 리, 별로 분류하여 기술함으로 지역 3 · 1운동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합천은 해인사를 포함한 총 9개 지역의 만세운동이 설명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변지섭의 『소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22] 그러나 당시 공개된 일제 관헌 자료를 활용하여 『소사』에 빠진 사실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23] 합천지역

21)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2, 1969, 297~300쪽.

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3, 3 · 1운동사(하), 1972. 323쪽~340쪽.

23) 예컨대 『소사』에 광장이라 기술된 3. 18일 삼가읍 시위장소가 삼가시장이었고, 3. 23일 가회면 시위는 상백면까지 진출하여 면사무소를 파괴했으며, 3.23일 향교 앞에서 거행된 것으로 나오는 야로의거가 3. 28일 읍내 시장에서 발생했고, 해인사 시위는 부속보통학교와 학림 학생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가야면 매안리에서 4. 3과 4일 시위가 폭발했다는 사실 등이 누락되었거나 차이가 나는 부분

3 · 1운동의 경과를 서술한 가장 대표적인 기록이다.

독립운동사편찬위는 연이어 3 · 1운동 관계 자료집을 편찬했다. 이중 3 · 1운동 관련 형사건 판결문을 번역한 (5)와 일제 헌병사령부의 공문서를 수록한 (6)에서 합천의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5)는 1919년부터 1921년 사이 기소된 인물의 자료다. 합천 출신은 李奉政(당 22세), 金道運(당 22세)과 李龍善(당 38세), 孫得龍(당 24세), 沈孟權(당 22세)이 나온다. 승려인 이용정, 김도운은 가야면 치인리가 주소이나 김천에서의 활동으로 기소되었다. 뒤의 3명은 3월 20일 합천 경찰서 습격에 가담했던 인물로 판결 이유에 당시의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24] (6)에는 당시 각 도의 헌병대장, 경무부장 연석회의에 제출된 보고서(『朝鮮騷擾事件狀況』)와 헌병대사령부의 3 · 1운동 정황 보고 문건(『朝鮮3 · 1獨立騷擾事件』)이 들어있다. 여기는 일제 군경이 조사한 합천 만세운동의 경과, 해인사 승려들의 저항, 진압조치와 수단, 만세운동이 합천의 산업, 특히 임업에 끼친 영향. 이후 이 지역의 민심과 여론의 동향 등이 기록되어 있다.[25]

(7), (8), (9)는 일제 군경이 3 · 1운동부터 3년간에 걸쳐 작성한 문건과 보고서(『韓國關係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로 국회도서관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소장한 것을 번역, 출판한 것이다. 여기에도 합천의 시위상황이 단편적으로 나와 있다.[26] 엄밀한 사료 비판이 요구되는 일제 측 문헌이지만 합천지역 3 · 1운동의 실상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록이라 하겠다.[27]

이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323~340쪽).

2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자료집』 5, 3 · 1운동 재판기록, 1972. 1255~1257쪽.

2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자료집』 6, 3 · 1운동사 자료집. 1973. 554쪽, 603쪽, 648쪽, 713쪽, 830쪽.

26)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3 · 1운동 1. 1977. 60쪽, 69쪽, 85쪽, 150쪽.

27) 이와 함께 연합군 사령부가 압수한 관헌문서를 편집한 자료집(김정명, 『조선독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합천 3 · 1운동에서 유림의 역할을 주목한 글이 이원균에 의해 발표되었다.[28] 이원균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집과 허선도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영남지역 만세운동의 폭력성을 유림의 존재와 연결하여 파악했다. 경남은 합천의 사례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3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5개면(대양, 묘산, 상백, 가회, 초계)의 시위를 모두 보수 유림이 주도한 것으로 기술했다. 이 논문은 알려진 주도인물 중 유림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열거하고 역할을 강조했을 뿐 참여한 합천유림의 사회적 기반이나 성향을 규명한 것은 아니었다.

공개된 자료를 추가하여 보완된 성과는 1981년 발간된 『陜川郡誌』의 3 · 1운동 편 서술이 아닌가 한다. 여기는 기존 저술에 등장하지 않았던 참여인물의 면모가 수형자를 중심으로 게재되어 있다.[29] 이들의 활동을 통해 전파경로가 새로이 드러나거나[30] 천도교와 같은 중앙지도부와의 연결 가능성[31]이 제시된 것은 일종의 수확이었다. 그러나 시위양상에 대한 설명은 『소사』와 『독립운동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운동의 특징이나 성격에 대한 분석도 시도되지 않았다.

이후 합천지역 3 · 1운동에 대한 서술이나 연구는 1980년대 후반까지 답보 상태에 빠졌다. 물론 이 시기에도 3 · 1운동에 관한 논저는 꾸준히 발표되었다. 민중사로의 관점이 대두되면서 지방의 사례연구도 실증적으로 이루지고 있었다.[32] 하지만 합천에 대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립운동』, 민족주의 편 1, 東京 原書房)과 경상남도경찰국이 1936년 편찬한 『高等警察關係摘錄』에도 합천의 3 · 1운동이 단편적으로 나온다.

28) 이원균, 「3 · 1운동 당시 영남지방 유림의 활동」, 『釜大史學』 4, 1980.

29) 합천읍과 대양면의 金在重, 李泰一, 車洪烈, 韓佑相, 朴宙洪,, 묘산면의 尹斗普, 대병면, 李台薰, 尹中洙, 상백면, 李相東, 金鎭權, 李元伯. 李啓燁 등이다(합천군지편찬위원회, 『합천군지』, 1981, 633~638쪽).

30) 합천군지편찬위원회, 『합천군지』, 632~633쪽.

31) 합천군지편찬위원회, 『합천군지』, 638쪽.

지역차원에서 자료를 발굴하거나 조명하려는 움직임도 없었다. 1987년 편찬된 『독립유공자공훈록』에 3 · 1운동으로 서훈된 합천인사 17명의 공적이 소개되었을 뿐이다.[33] 또 3 · 1운동의 연구 성과를 수렴한다는 취지로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개설서에 합천의 운동이 언급되었으나 이 역시 『독립운동사』의 서술을 요약 한 것에 불과하다.[34]

요컨대 『3 · 1운동비사』를 시원으로 『경남독립운동소사』와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의 『독립운동사』 3을 통해 정리된 합천지역의 3 · 1운동사는 1970년대의 관계자료 발굴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지』에서 부분적으로 보완되었을 뿐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198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업적을 제출하고 한 단계 비약한 시점은 3 · 1운동 70주년을 맞은 1989년이었다.

2. 1989년의 성과와 현 단계

1989년 70주년을 맞아 언론사와 학회의 제휴로 3 · 1운동을 조명하는 다양한 학술회의가 개최되고 연구물이 발표되었다.[35] 이들 중 한국역사

32) 김진봉, 「湖西지방 3 · 1운동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1987; 이정은, 「안성군 원곡의 3 · 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1987; 김진봉, 「關西지방의 3 · 1운동」, 『최영희선생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1989; 황부연, 「충북지방의 3 · 1운동」, 『충북사학』 1, 1987; 박창건, 「3 · 1운동과 천도교 지방교구의 활동」, 『신인간』 458, 1988; 이정은, 「창녕군 영산의 3 · 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33) 게재된 인물은 공재규, 구범이, 권무용, 권영두, 김영기, 배상기, 심맹권, 오영근, 윤성현, 이경민, 이계엽, 이용선, 임상종, 정방직, 정점시, 정판백, 추용만이다(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3, 삼일독립운동편, 1987, 601~796쪽).

34) 최근무, 「경상도 지방의 3 · 1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392쪽.

35) 『3 · 1운동과 민족통일』, 동아일보사, 1989; 『3 · 1운동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의 현대적 해석』, 조선일보사 ·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89; 『3 · 1운동 70주년 기

연구회와 역사문제연구소가 심포지엄을 거쳐 출간한 『3 · 1민족해방운동연구』는 이른바 '과학적' 해석을 표방하고 집필된 공동연구서였다.[36] 이 책은 4~6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이중 제2편 「3 · 1운동의 전개양상」은 참가계층 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 '운동의 구체성'을 획득하려는 의도에서 검토된 것이다. 여기는 시위가 가장 활발했던 3개 지역(평안도, 경기도, 경상남도)을 분석했는데, 경남의 사례에 합천이 제시되어 있다.

이 책은 3 · 1운동의 참여계층을 다섯 유형(지식인 · 청년학생, 농민, 노동자, 소부르주아지, 양반유생)으로 분류한 다음 각각의 투쟁양태를 설명하였다. 또 진행단계에서 계급적 자각을 거듭한 민중의 진출로 운동이 공세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3 · 1운동에서 민중이 단지 '즉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념과 조직의 측면에서 독자성을 확보한 '대자적' 존재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었다.[37] 저자들은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언급한 3개 지역의 투쟁과정과 민중의 참여 양상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중 경남지역과 합천에 관한 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38]

「경남지방 3 · 1운동」의 필자는 우선 지방 3 · 1운동의 실상과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진함을 지적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운동을 맞이한 시점, 즉 1910년

념심포지엄 발표문』, 한국역사연구회 · 역사문제연구소, 한겨레신문, 1989.

36) 한국역사연구회 ·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3 · 1 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37) 역사문제연구소 민족해방운동사 연구반, 『쟁점과 과제-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1990, 139쪽.

38) 이하의 내용은 이 책에 실린 정연태의 글을 요약, 소개한 것으로 따로 주를 부기하지 않는다(정연태, 「경남지방의 3 · 1운동」, 『3 · 1 민족해방운동연구』, 348~393).

대 경남지역 민족운동의 주체적 조건(의병전쟁, 교육계몽운동, 비밀결사, 생존권 수호투쟁)을 먼저 서술했다. 이어 경남지역 전체 3 · 1운동의 양상을 간략히 개관하고 촉발과정에서 민족대표와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운동의 조직과 전개과정에 참가한 계층의 분석을 시도했다. 여기에는 계층별 참여현황과 시위양상, 확산과정에서의 역할 등이 나타나 있다. 또 시위초기에 '민족대표'의 존재는 탈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체들도 통일된 조직이나 이념을 구현하지 못하여 시위는 고립분산적인 대중봉기의 형태로 추진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민중의 능동적인 참여로 운동은 강력한 반일투쟁으로 진화되었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약한 조직과 사상은 걸러지고 이들의 에너지를 담아낼 새로운 역량이 모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논지를 입증하기 위해 필자는 경남의 몇 가지 사례를 검토했다. 합천지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글은 합천의 운동이 총 17회 시위에 2만 4천명이 참가하고 9번의 발포 공격을 받아 도내에서도 가장 극렬한 투쟁양상을 보였음을 지적하였다. 전개과정과 피해상황을 수치로 제시하고 합천이 치열한 '농촌시위의 전형'과 '지역적 연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장이라 평가하였다. 또 주도자가 확인되는 9건의 시위 중 7건에 양반유생이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투쟁의 배경에 유림의 反日的 전통이 있음을 강조했다. 면장, 면서기, 이장 등 지방 유력자들이 적극 가담한 것도 유생의 영향으로 보았다. 그리고 가야산 일대가 한말 의병의 근거지였다는 점을 들어 합천의 전투적 3 · 1운동과 의병항쟁의 역사적 경험을 연결시키고 있다. 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병출신자의 참여는 가능성만 상정하였다.

또한 이 글은 합천지역에 일찍부터 교육계몽운동이 전개되어 주민들을 고무시킨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1908년 설립된 삼가야학을 비롯한 대한제국기의 각종 노동, 국문야학을 언급하며 이들 교육기관이 합천 민중의 계몽과 의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39] 군내의 시위에 노

동자, 자영업자들이 적극 참여했던 것도 그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유림, 의병의 전통뿐 아니라 문화 계몽운동의 영향력을 결부한 것으로 당시까지 이 지역의 3·1운동 서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도였다.

한편 이 글은 경남지역 투쟁 양상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서 합천의 경우도 설명하였다. 경남은 지역 단위로 주도자들이 시위대를 조직하는 현상이 타지와 변별되는데, 삼가 장날 개최된 일제 규탄대회가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3월 23일 가회면민이 삼가읍으로 진출할 때 선두에 세웠던 농악대를 효과적인 선전, 선동 수단으로 평가하였다. 경남의 시위는 조선후기 농민항쟁의 일환이었던 산호(山呼)시위 산상봉화시위가 등장하는 것도 특징이다. 합천은 4월 4일 가야면 매안리 시위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 연구는 경남지역의 운동이 주도자들의 조직 작업을 통해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계층,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해 투쟁공간이 확장되고 치열해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때문에 시위가 장기화되고 지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창원, 진주와 함께 합천이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경남지역의 민중이 3·1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기초로 전개한 1920년대의 민족운동을 서술했다. 당연히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추진된 노동, 농민, 청년, 신간회 등 각종 부문운동이 다루어져 있다. 그러나 3·1운동과 달리 지역 사례에 합천은 전혀 언급 되어있지 않다. 후술하겠지만 합천지역 3·1운동의 외연과 지평 확대라는 면에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 규명되어야 한다.

---

39) 합천은 유지들에 의해 自致夜學이 설립되었고(『황성신문』, 1908년 11월 20일, 「自致夜學」) 사립 興明學校의 부설로 국문야학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이 학교는 야학생의 수가 주간학생보다 많았다 한다(『황성신문』, 1909년 9월 7일, 「興明其興」).

『3 · 1 민족해방운동』의 내용은 상황만 정리하여 일지 형태에 머물렀던 기존의 합천 3 · 1운동사 서술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3 · 1운동을 민족운동의 성장과정으로 인식하고 민중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의도이다. 따라서 합천도 주도집단의 조직화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동원과 참여양상, 운동형태의 특징 등이 분석, 제시되어있다. 사실의 나열과 선양 수준을 넘지 못했던 이 지역 3 · 1운동사에 처음으로 '과학적 해석'을 시도한 전향적인 업적이라 하겠다. 다만 합천지역을 專論한 것은 아니며 민중사라는 목적의식 하에 집필되었기에 사실이 '과잉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곳의 3 · 1운동사는 같은 해 이정은의 「경남 합천의 3 · 1운동」이 발표됨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일정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40] 1989년 말에 나온 이 논고는 판결문 등 일부 사료를 추가하여 문헌자료를 보완하였다. 무엇보다 충실한 현지답사와 증언 수집을 통해 연구의 폭과 깊이를 끌어 올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 이 지역 3 · 1운동을 양상 뿐 아니라 지역별, 전개과정, 추진주체로 나누어 특징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합천지역 3 · 1운동에 대한 가장 심도 있는 고찰이자 실증적인 연구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능가하는 업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정은은 지역 자체 문헌과 3 · 1운동 원심 기록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합천의 인문, 지리적 여건을 먼저 언급하였다. 여기에는 남명의 문하에서 임란 의병장, 무신란, 한말의병에 이르기까지 합천 유림의 동향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41] 3 · 1운동과 이곳 유생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전제라 생각된다. 계속해서 그는 군내의 시위가 가장 격렬했던

40) 이정은, 「경남 합천의 3 · 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41) 이정은, 「경남 합천의 3 · 1운동」, 6~7쪽.

지역으로 합천, 대병, 대양, 초계, 삼가를 지목하고 양상을 서술했다. 보완된 부분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양면은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주도자 姜弘烈의 신상과 운동 준비과정이 후손의 증언을 토대로 설명되어 있다. 순사와 소방부, 주민으로 구성된 진압대와 시위군중의 피해실태가 추가되었으며, 『합천군지』에 의거하여 희생자의 신원도 전보다 상세히 밝혀놓았다. 대병면 창리는 시위 방법 결정, 임무 분담 등 모의 상황과 태극기의 제작 경위 전달과정 등이 새로이 기술되어 있다. 발굴된 판결문과 증언을 참고한 것이다. 초계면 초계 시위도 후손의 증언을 근거로 추진 과정과 주도자의 신상이 보완되어 있다. 특히 노호용, 이봉우 등의 활약은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다. 삼가 거사는 상백, 가회가 포함되어 가장 많은 분량이 서술되어 있다. 여기는 운동을 주도한 문중부터 선언서의 전달 경위, 추진세력의 신원, 시위상황과 강도, 추이 등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역시 증언과 판결문을 근거로 하였다.[42]

이 글은 계속해서 전개 과정에 나타나는 이곳 3 · 1운동의 특징을 일시, 장소, 전파경로, 시위양상 별로 제시했다. 대부분의 면이 생활권내의 장터를 활용했지만, 삼가시위에는 가회, 대병 면민이 참여한 사실을 들어 합천운동의 조직성 · 계획성을 지적했다. 지방의 사례에서는 규명하기 힘든 전파 경로도 면 별로 정리되어 있다. 합천은 因山 참여자와 在京 인사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보이나, 백산면 李愿永의 경우를 들어 천도교, 즉 중앙과의 관계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시위양상에서는 합천 시위대의 구성을 장날의 자연군중과 동원군중이 결합된 형태로 파악했다. 또 결사대가 만들어져 선도했던 합천 · 대양시위를 독특한 경우로 분류했다. 그리고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격렬함과 폭력성은 합천군의 3 · 1운

42) 이정은, 「경남 합천의 3 · 1운동」, 9~20쪽.

동이 처음부터 전략과 조직을 가지고 공세적으로 추진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면 단위의 연합시위를 주요한 특징으로 꼽고 양상을 소개했다. 배경으로는 특정 지역이 중심이었고 지주, 자산가들의 지원이 있었으며 유림사이의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43]

끝으로 이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거론 수준에 불과 했던 추진주체들의 신상과 이력을 조사하여 일람한 사실이다. 즉 6개 면(대양, 대병, 초계, 백산, 상백, 가회) 주도인물 28명의 출신과 연령, 재산정도, 경력이 적시되어 있다. 언급한『합천군지』의 내용과 후손의 증언을 참고한 것이지만, 합천 3 · 1운동 주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라 할 수 있다. 덧붙여 대부분 유림인 이들이 이곳의 시위를 주도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합천의 3 · 1운동이 지방에서 가장 대규모였으며 치열했음을 분명히 하고 연합시위와 유림 참여[44]를 핵심적인 양상으로 규정하였다. 또 3 · 1운동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19세기 향촌 사회의 동향과 그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쳐 이 거족적 투쟁에 이르게 되는 맥락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여 향후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45]

---

43) 이정은, 「경남 합천의 3 · 1운동」, 23~32쪽.

44) 합천 유림의 존재는 이후 3 · 1운동과 유림세력의 관계를 규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수용되었다. 어느 연구자는 3 · 1운동과 유림의 역할을 발표하는 글에서 이정은의 논문을 전적으로 참고하여 합천시위를 소개했을 정도이다(강대민, 「파리장서와 영남유림」,『파리장서와 유림의 독립청원 학술대회 발표문』,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2, 40~43쪽).

45) 이정은은 2년 뒤인 1991년, 3 · 1운동의 지방 확산 배경과 성격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여기도 합천이 언급되어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재지 유력 층이 합천시위를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유림적 질서 외 지역사회에 내에 일제의 침투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근대적 산업, 교통시설이 도입되지 않았기에 구래의 향촌질서가 온존할 수 있었고 강력한 추진주체가 형성되어 주민

이상의 두 논저가 발표된 후 19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합천 3 · 1운동사를 보완할 자료나 논고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경남의 3 · 1운동을 다룬 개설서나 연구서가 간헐적으로 출간되었으나[46] 내용은 재론의 정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합천문화원에 발행한 향토사서도 마찬가지다. 1990년 편찬된『陜川의 獨立運動史』의 3 · 1운동 서술은『독립운동사』의 합천군 편을 거의 전재한 것으로『독립운동사자료집』의 판결문과 희생자 명단이 일부 추가되어 있다. 다만 주도자 46명의 신상과 활동을 略傳 형식으로 수록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 역시 기존 기록과 중복되는 면이 많다.[47] 이어 간행된『陜川郡史』에도『독립운동사』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48] 다만 경남지역 3 · 1운동 참여자와 시위통계를 추록하여 작성한 자료집[49]이 발간된 것이 유일한 성과라 하겠으나 그다지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살펴본 대로 합천지역 3 · 1운동사는 1989년의 연구 결과로 집결되고 정리되었다. 공동연구의 일환이었지만 민중의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시

에 대한 동원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근거로 백산, 상백, 가회의 토지대장을 제시하여 3 · 1운동 이전까지 이 곳에 日人 소유지가 거의 없었음을 입증했다(이정은,「3 · 1운동의 지방확산 배경과 성격」,『한국독립운동사연구』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36~38쪽).

46) 신용하,『3 · 1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157쪽: 김성수,「3 · 1운동과 합천」,『경상남도 각 시 · 군의 3 · 1독립운동』, 경상남도향토사연구협의회, 1999, 282~297쪽; 이정은,「3 · 1운동」,『한국사』47, 국사편찬위원회, 2001, 359~360쪽; 윤병석,『증보 3 · 1운동사』, 국학자료원, 2004, 63쪽; 김진호 · 박이준 · 박철규,『국내 3 · 1운동 Ⅱ-남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91~292쪽;; 이정은,『3 · 1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국학자료원, 2009, 215~238쪽; 김상환,『경상남도의 3 · 1독립만세운동』, 경인문화사, 2012, 228~245쪽.

47) 합천문화원,『합천의 독립운동사』, 1990, 20~107쪽.

48) 합천문화원,「합천의 3 · 1운동」,『합천군사』, 1995, 199~213쪽.

49) 이대수 편저,『경남 항일운동 참여자록』, 국가보훈처 마산보훈지청, 2001.

위 양상과 특징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등장했다. 합천을 專論한 연구 논문도 처음 발표되었다. 폭넓은 증언과 자료가 활용된 이 연구로 이곳 3 · 1운동의 전모가 거의 밝혀졌다. 이후 괄목할 만한 업적이 나오지 못한 이유도 그 때문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1989년의 성과를 넘어서지 못하고 현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들 연구는 이 지역 3 · 1운동사의 결실인 동시에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Ⅲ. 합천지역 3 · 1운동 연구의 과제

합천의 3 · 1운동 연구가 현 단계에서 해명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연구에서 사상되었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이 곳의 운동을 주도한 유림의 실체를 보다 면밀히 규명해야 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림은 양반유생, 재지토호, 혹은 개신유림과 동일한 인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듯하다. 하지만 신분만이 아니라 이들 유림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사하여 계층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유림, 유생은 기본적으로 지주계급에 속한다. 지주도 대지주와 중소 신흥지주, 주경야독형 자영농으로 분류된다. 3 · 1운동에 이 모두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 중 합천 만세운동을 주도한 계층을 추적하여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910년대 합천지역의 토지소유관계와 지주층의 존재형태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 인사 중 盧沙학파와 寒洲 · 俛宇계열의 인물을 찾아내어 한말 의병항쟁에서 노선을 달리 했던 이들이 3 · 1운동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3 · 1운동 이후 이들 주도 유림의 활동과 추이도 밝혀져야

한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지방 엘리트였던 유지, 혹은 유력자의 존재를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를 통해 3 · 1운동을 주도한 '합천유림'의 실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곳 시위의 특징인 '폭력성'에 관해서도 배경과 성격을 좀 더 고찰해야겠다. '민족대표 33인'이 천명한 비폭력 투쟁은 지방 확산과정에서 관철될 수 없는 노선이었다. 지역은 농민을 주력으로 폭력투쟁이 전개되었으며, 그 중 합천이 가장 격렬한 형태를 보였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다만 그러한 폭력화가 일제의 탄압에 대한 응전의 수준인가 아니면 민중 스스로가 식민권력을 타도하려고 했던 목적의식의 소산이었던가 라는 문제는 일치된 의견이 없다. 대체로 전자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지방독립'이나 '자치'를 계획한 사례도 발견된다.[50] 합천은 앞의 경우로 비치지만, 후자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폭력화'의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는 합천지역의 식민지 지배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곳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시위대의 공격은 면사무소, 주재소, 우편소, 전신주 등 공공기관과 시설에 집중되었다. 식민지 통치기구가 주민의 통제와 탄압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반증한다. 시위대의 공세는 그에 대한 대응이자 생존권 투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朝鮮面制'나 '토지조사사업' 등 일제가 선전한 '식민지근대화' 사업이 1910년대 합천농민의 생활수준을 어떤 상황으로 끌고 갔는지 구명되어야 하겠다. 치열했던 합천투쟁의 배경을 '양반유생의 反日的 전통'에서만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합천지역 근대민족운동의 흐름에서 이곳 3 · 1운동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3 · 1운동을 전후한 합천의 민족운동이 체계적으

50) 이정은, 「안성군 원곡, 양성의 3 · 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

로 밝혀져야겠다. 기존의 서술은 합천의 항일전통을 의병항쟁에서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교육운동, 국채보상운동 등 국권회복운동의 또 다른 노선이었던 계몽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3 · 1운동의 경험과 역량을 기초로 1920년대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던 부문, 대중운동에 관한 연구도 이루지지 않았다. 노동, 농민, 청년, 여성, 신간회, 사회주의 등 3 · 1운동 이후 분출했던 사회운동의 양상이 규명되어야 하겠다. 경남은 만세운동이 격렬했던 지역에 부문운동이 활발했는데, 진주지역의 경우 이를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51] 도내에서 가장 치열한 투쟁을 보인 합천에서 이후 대중운동의 성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지역 3 · 1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52]

마지막으로 이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료의 발굴과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합천은 수형자의 재판기록이 한국전쟁 중 상당 부분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의 자료나 D.B를 좀 더 추적하면 새로운 판결문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문중이나 개인 소유 문서 중 3 · 1운동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겠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문헌 · 구술 자료집 발간도 요망된다. 특히 구술사료 수집은 주민과 후손의 기억을 통해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으로 근, 현대사에서 중요한 연구방법이다. 지자체들이 시 · 군사를 편찬하기 전 자료집을 간행하여 토대를 구축하는 현상은 참고할 만하다.[53] 이

51) 김희주, 「1920년대 진주지역의 청년운동과 진주청년동맹」,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2, 2012; 「일제하 진주지역 천도교의 문화운동」, 『동국사학』 55, 2013; 「진주지역의 사회주의운동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동국사학』 61, 2016.

52) 다만 이 글과 함께 같은 학술대회에서 초계지역의 청년운동에 관한 논고가 발표되었다(박용국, 「1920년대 초계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 3 · 1운동 100주년 기념 합천군 3 · 1독립만세운동 학술대회 발표문』, 2018).

53) 수원문화원, 『구한말 · 일제하 수원관계 신문자료집』Ⅰ, 2002.; 수원시, 『수원 근 · 현대사 증언 자료집』Ⅰ, 2001; 『수원 근 · 현대사 증언 자료집』Ⅱ, 2002.

러한 작업은 지역에 애정을 가진 향토사가와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손잡고 진행할 때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합천지역 3·1운동의 연구사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하 한국인의 저술에서 합천 3·1운동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韓國獨立運動之血史』와『韓國獨立運動史略』이다. 여기에는 참여인원과 피해실태가 통계로 제시되었을 뿐 운동양상은 소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서술은 이병헌이 1959년 편찬한『3·1運動秘史』에 나타난다. 3. 19일 합천 장날 시위에서 4. 1일 해인사 의거까지만 소략하게 기술되었으나 시위양상을 처음으로 개관했다는 면에서 가치를 지닌다.

3·1운동연구는 1960년대 와서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전체상과 중앙에 집중되었을 뿐 지방사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방은 제도권 학계보다 참여자와 후손에 의해 의미 있는 성과가 제출되었다. 이중 변지섭의『慶南獨立運動小史』는 합천지역 8개 면의 운동상을 세밀하게 기록하여 이후 이 곳 3·1운동사 서술의 전범이 되었다. 이를 보완하여 1972년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독립운동사』3권에 합천의 3·1운동이 다시 정리되었다.

한편 1969년부터 70년대 말까지 관변위원회에 의해 다양한 자료집과 연구서가 간행되어 3·1운동연구의 영역이 확장되고 지방사 연구의 기원이 열리게 되었다. 일제 관헌문서와 판결문을 주로 한 이들 자료를 통해 폭력성과 유림의 존재 등 합천지역 3·1운동을 특징하는 내용이 드러나

게 되었다. 또 이를 부분적으로 언급한 논문도 등장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專論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천지역 3 · 1운동연구가 새로운 성과를 달성한 것은 운동 70주년을 맞은 1989년이다. 이해 한국역사연구회와 역사문제연구소가 공동연구로 발간한 『 3 · 1민족해방운동연구』의 합천 편 서술은 나열과 선양 수준을 넘지 못했던 이 지역 3 · 1운동사에 '과학적 해석'을 시도한 전향적 업적이었다. 이어 같은 해 발표된 이정은의 『경남 합천의 3 · 1운동』은 합천을 전론한 최초의 연구물이었다. 현지 답사와 증언을 통해 문헌자료의 한계를 보완한 이 논문은 합천 3 · 1운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실증적인 연구라 하겠다.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1989년의 성과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합천지역 3 · 1운동연구가 현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첫째, 주도 층인 유림의 실체를 보다 면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신분에 머물지 않고 경제적 기반도 분석하여 범위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 1운동 이후의 행적도 추적하여 식민지 합천 사회에서 이들의 추이를 밝혀내야 한다. 둘째, 시위의 특징인 '폭력성'의 배경과 성격도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찾아보아야겠다. 일제의 지배정책과 1910년대 합천 사회상을 연결하여 파악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셋째, 이 지역 3 · 1운동의 위상도 근대민족운동사의 흐름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병항쟁뿐 아니라 대한제국기의 계몽운동, 1920년대 각종 부문 대중운동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9.03.29 투고 / 2019.05.27 심사완료 / 2019.05.27 게재확정)

[Abstract]

Reality and Challenge of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in Hapcheon

Kim, Hee-ju

This article reviewed the history of the M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in Hapcheon and proposed challenges to research.

Hapcheon was the area which was noted for the violence and the role of "Confucians" in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MFIM). The joint protest is also pointed out as a feature.

Records of the movement here appea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However, specific and historic researches were made in the 1960s. Several facts were revealed in the published data collection, but there was no research that dealt with the movement in this area intensively.

The development of research for this area was in 1989, the 70th anniversary of the movement. There was an attempt which intended to interpret the features through joint researches. Theses that was detailed analyses for aspects and characteristics in this area were also published.

As a result, much of the whole picture and the reality of the MFIM in this area was revealed. Since then,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gress until the present. In order for the study of the MFIM in Hapcheon to advance, it is necessary to further deepen the research

results so far.

For this research purpos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iverse aspects of leading class Confusions and characteristic violence from various angles. Also, the impact of Japan's colonial policy on the lives of the farmers in Hapcheon should be analyzed. In addition to the MFIM,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social movement in Hapche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n order to solve these challenges, efforts should be made for a new historic discovery.

□ Keyword

Hapcheon,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in Hapcheon, Confucians in Hapcheon, Violence of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참고문헌]

단국대동양학연구소, 『박은식전서』 상, 1975.
이병헌, 『3 · 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변지섭, 『경남독립운동소사』 상, 삼협인쇄사, 1966.
3 · 1동지회, 『3 · 1독립운동실록』 하, 1985.
동아일보사, 『3 · 1운동50주년기념논집』, 1969.
합천군지편찬위원회, 『합천군지』, 1981.
합천문화원, 『합천의 독립운동사』, 1990.
역사문제연구소 민족해방운동사 연구반, 『쟁점과 과제－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1990.
남부희, 『유림의 독립운동사 연구』, 범조사, 1994.
한국역사연구회 · 역사문제연구소, 『3 · 1 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신용하 『3 · 1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경상남도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남도 각 시 · 군의 3 · 1독립운동』, 1999.
윤병석, 『증보 3 · 1운동사』, 국학자료원, 2004.
김진호 · 박이준 · 박철규, 『국내 3 · 1운동 Ⅱ－남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이정은, 『3 · 1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국학자료원, 2009.
김상환, 『경상남도의 3 · 1독립만세운동』, 경인문화사, 2012.
김희주, 「매일신보에 비친 경남서부지역의 3 · 1운동과 일제의 대응」, 『강우문화연구』 1, 2006.
김창수, 「3 · 1 독립운동 연구사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교문사, 1998.
박성수, 「구한말 의병전쟁과 유교적 애국사상」, 『대동문화연구』 6 · 7, 1970.

박용국, 「1920년대 초계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3 · 1운동 100주년 기념 합천군 3 · 1독립만세운동 학술대회 발표문』, 합천문화원, 2018.
신용하, 「3 · 1운동 연구의 현단계와 과제」, 『한민족독립운동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93.
이원균, 「3 · 1운동 당시 영남지방 유림의 활동」, 『부대사학』 4, 1980.
이정은, 「경남 합천의 3 · 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이정은, 「3 · 1운동의 지방확산 배경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조동걸, 「3 · 1운동의 지방사적 성격」, 『역사학보』 47, 역사학회, 1970.
최근무, 「경상도 지방의 3 · 1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